

“불교 교리체계 종교 자유 옹호”

김용표교수 '종교의 자유 심포지엄' 서 주장

“참된 종교의 자유실현을 위해서 서구 종교에서 중요시 해온 정 의 심판보다는 지혜와 자비를 우 해야 한다.”

UN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으로 일 삼육대에서 열린 국제종교자 협회 북태평양지회(사무총장 신 다다오미) 주최 '종교의 자유 포지엄'에서 김용표 교수(동국대 교학부)는 '불교의 관점에서 본 '교의 자유'에서 '불교는 종교의 유를 가장 확실하게 옹호하는 교 리체계를 지니고 있는 종교'라고 강조했다.

인도 베트남 티베트 등 아시아 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 해탈 사례 분석을 통해 김용표 수 : “종교의 자유 침해는 인간의 기 적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1. 원인에 대해 스타종교에 대한 타락 교리와 강령 특색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이익 집단화하려는 집을 들었다. 김용표는 불교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에 대해 갖는 입장에 대해 칼라마경) 아쇼카왕의 선언 등을 인용, 관용과 이해의 정신에 바탕



2천5백년 불법포교 박해사레 한건도 없어

“타종교비난 인권유린 공존의 조화 지혜 배우자”

한 불교는 2천5백년에 걸친 포교 과정에서 어떠한 박해의 사례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칼라마경》의 “전통이나 종교적 권위를 지닌 성전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등 의 이유로 이끌리지 말라. 다만 그 대 스스로 어떤 것이 온전히 옳고, 나쁜 것인가 알 때 버리도록 하라”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한 김교

수는 “불교는 사상과 언어와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태도를 가르치며, 맹목적 믿음이나 전통의 힘을 강요하는 종교에 대해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 아쇼카왕(268~232 재위)의 비석 칙령에는 ‘자기의 종교만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종교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이의 종교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의 종교의 교의(敎義)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인용하면서 “불교는 배타적 절대 진리주장이나 도그마적인 진리관을 버리고 가르친다” “불교가 타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교만이 진리를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교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교의 기본 교설을 바탕으로 현대의 종교 자유문제에 대해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배타적인 절대 진리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전통과 도그마로부터 자유



12일 삼육대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심포지엄.

로워질 때 참다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초가 형성 된다는 것. 또 “여러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종교학적 지식의 연마와 아울러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사회이적 집단화하려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나아가 함께 공존하는 조화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한국사상사연구 문중중심 치우쳐” 한형조교수 관행 비판

한형조 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문중학(門中學)’이란 부정적 평가를 들어온 국내 동양철학계에 비판을 제기, 화제다. 13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회 중국어문화회 학술발표회에서 한교수는 “한 인물의 사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문중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연구논문이 쏟아지는 기현상을 보여왔다”고 개탄하며, “문중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제적이나 사상적 특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풍토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불교와 현대과학 만남은 필연

소홍렬교수 주장

“과학의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하는 의식의 세계 또는 마음의 세계에 있어 놀라운 수평의 길을 개척해준 불교는 정교하고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주최로 13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 연구의 현대적 조망 2차 세미나에서 소홍렬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불교와 의식의 과학’을

통해 “불교와 현대과학의 만남은 필연이다”고 주장했다.

소교수는 “의식의 과학이 의식의 단계, 또는 진화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과학이 되고자 할 때 불교와 연가적 관계를 갖게 된다”며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불교적 수형법은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하지만 인지적이고 지성적이며 논리적 철저함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게 의식세계를 그처럼 심오하고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를 설정하지 않고 내재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 불교의 자유로움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소교수는 “초월적 힘에 의존하는 수행이나 믿음의 방법도 없이 ‘연기’와 ‘공’의 두 개념만으로 의식의 계발

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불교와 과학적 개념의 접점은 의식세계의 과학적 전개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성철씨(중앙승가대 강사)는 “현대과학에서의 ‘의식’, ‘인지’와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 ‘마음’에 있어 먼저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교수가 이어 김용표선(이화여대 강사)가 ‘불교적 후천의 모형’을 발표했다.

김정은 기자

학술단신

7회 백련불교아카데미

제7회 백련불교아카데미가 ‘불교 관련문헌의 영역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 대학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서울대 윤원철 교수(종교학과)의 <선문정론> 영역작업 중의 경험론을 비롯, ‘불교서적 영역을 위한 방법론’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 265-5216

‘원불교사상’ 21집 발간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정현)에서 최근 <원불교사상> 21집이 나왔다.

이번 논문집에는 △최치원 연구

의 문제점과 과제(최병현·서울대) △한국에서의 미륵신앙의 전개와 역사(백승중·독일 튀빙겐대) 등이 수록돼 있다.

연구논문 지원자 선정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8년 학술연구비지원 ‘우수연구논문’ 지원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논문 및 연구기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한 유식학적 고찰(김명실·동국대 강사) △1과 2 그리고 3-현대적 교판(敎判)을 모색하며(최정규·고려대 강사) △선불교사상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해석(백승대·영남대 교수) △역대선조 선사들의 계보와 그 활동(황인규·동국대 강사) △(육조 단경)에서의 견성의 의미(윌호스님·쌍계사 중강) 등이다.

“종교 수용할때 과학 발전가능”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타운박사등 과학자 27명美서 세미나 열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찰스 타운박사 등 과학자 27명이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종교와 자연과학 연구센터에서 8~10일 ‘종교와 과학의 제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종교와 과학 사이의 불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 과학자들은 “20세기 들어서 양자역학과 초미립자 세계의 발견으로 과학이 줄곧 추구해온 객관적

세계관이 불확실해졌다”며 “현대 과학의 영역에 종교를 적극 수용할 때 과학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연 포일스트박사(메사추세츠기술연구소)는 현재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인간로봇 ‘코그’의 의미를 불교의 환생관으로 설명했다. 아서 피코르박사(생화학자)는 “과학적 사실은 매년 새로운 기술·지식에 힘입어 개정돼 왔

지만 이제는 종교를 수용해 충격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타운박사(물리학 노벨상 수상자)는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 세계관의 허점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것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준비했던 자연과학 연구센터의 주임연구원 리처드 슐박사는 “동시대 과학자들은 종교를 용납하지 않았던 구시대 과학자들과는 과학의 대세를 거슬러는 종교원리주의자들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해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오종욱 기자 (gobaeou@buddhapia.com)

아시아 지역 빈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구호기관 중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는 불교빈민구제사업단(Buddhist Relief Mission). 1988년 일본 나라현 카슈와라시에서 일본불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교빈민구제사업단을 설립했다. 이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무급의 자원봉사 직원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교육·복지사상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등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불교빈민구제사업단이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아시아 빈민 지원자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담파(법구경) 파다(법구경)>라는 소식지를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현재 이 소식지는 라오스에서 4천8백부, 크메르에서 4천부, 몬에서 1천부를 무료로 배포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무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 빈민구제사업단

일 종파초월 결성 약품·의료기기 기증 경전·염주 등 보급 아시아 빈민 구호

이 사업단은 카루만두 고원지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노약자들을 위한 불교 수용소, 인도 켈카타시 관자촌 학교, 미얀마 상가병원(Sangha Hospital), 방글라데시 차르마시의 고아원·약아소 시설 등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국경 경계보다는 문중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연구논문이 쏟아지는 기현상을 보여왔다”고 개탄하며, “문중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제적이나 사상적 특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풍토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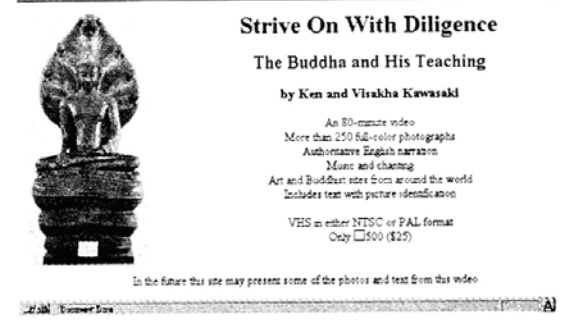
최근에는 ‘아시아 기아-기아 체질’과 ‘세계 구제 현황 보고서’ 등의 영상물을 제작해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빈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아시아 기아-기아체질’ 비디오는 총 80분(分)의 영상물로 250장의 자료 사진이 담겨있다. 또 기아 현장에서 통행되는 법외의 생생한 모습 뿐만 아니라 ‘기아체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녹취도 들을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비사가 카와사키가 제작했다. 이 비디오들은 구제사업단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전자 구매할 수 있다. http://www2.gol.com/users/br/ellief/ 오종욱 기자

Strive On With Diligence The Buddha and His Teaching

by Ken and Visakha Kawasaki

An 80-minute video More than 250 full-color photographs Authentic English narration Music and chanting Art and Buddhist site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es text with picture identification VHS or enter NTSC or PAL format Only \$200 (\$25)

In the future this site may present some of the photos and text from this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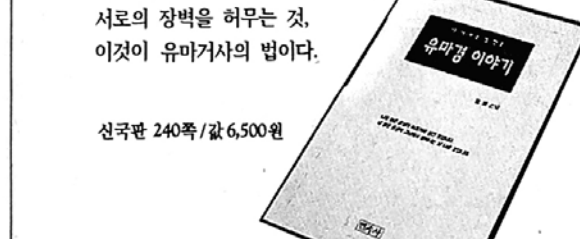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쉽게 풀어쓴 새로운 경전 이야기!

다시보는경전① 유마경 이야기

慧 諫 스님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를 것입니다.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를 것입니다.” 중생과 자기를 동체대비시킨 유마의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하나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유마경사의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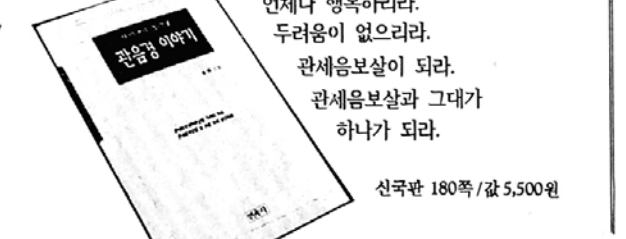
신국판 240쪽 / 값 6,500원

다시보는경전② 관음경 이야기

東 峰 스님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염하라. 그러면 늘 평안하리라.



신국판 180쪽 / 값 5,500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면서 모든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